

에티오피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5
V. 종합의견	16

I. 일반개황

면적	1,104천 km ²	G D P	857억 달러 (2018년 추정)
인구	94백만 명 (2018년 추정)	1 인 당 GDP	910달러 (2018년 추정)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Birr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환율(달러당)	27.75 (2018년 추정)

- 아프리카 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지부티와 소말리아(동), 수단(서), 케냐(남), 에리트리아(북)와 국경을 접하고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이집트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2018년 약 9,414만 명)임.
- 1974년 이후 사회주의 군부 정권 하에서 다수의 국경 분쟁과 내전을 겪으며 가뭄 및 사회주의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였음. 2018년 기준 1인당 GDP는 940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 저개발국임.
- 내각이 정치 실권과 국군통수권을 갖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91년 멩기스투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음.
- 80여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 간 갈등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2016년 10월 반정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유혈진압으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였음.
-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반정부 인사 사면에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자 2018년 2월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사임하고 3월 오로미아 주 출신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취임하였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10.3	10.4	8.0	10.9	8.5
재정수지 / GDP	-2.6	-1.9	-2.3	-3.3	-2.5
소비자물가상승률	7.4	10.1	7.3	9.9	11.2

자료: IMF, EIU.

□ 대규모 투자 등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 지속

- 에티오피아 경제는 전력, 도로, 통신 등 인프라 확충에 따른 투자 증대 및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수혜를 기반으로 최근 수년 간 평균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6년 경제성장률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급감, 10월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따른 사회 혼란 등의 여파로 인해 전년대비 하락한 8.0%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정치 불안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 회복과 인프라, 제조 부문 투자 등에 힘입어 10.9%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8.5%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4월 발표된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중국 기업 등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올해 가나를 제치고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낮은 조세수입과 정부 주도의 개발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지속

-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정부 주도의 개발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 압박으로 재정수지는 최근 수년 간 GDP 대비 평균 -2%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의 경우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농업 부문으로부터의 세입이 극히 적고, 민간경제 발전 수준이 낮아 세수기반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년 (-2.3%)보다 상승한 -3.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동 비율이 -2%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비르화 평가절하 등에 따라 전년대비 상승
- 과거 30%를 넘나들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 및 저유가 기조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평균 10% 미만으로 많이 낮아졌으나, 기상조건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증감 여부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뭄의 여파 및 비르화 평가절하(2017. 10월)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상승한 9.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국제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1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Ethiopia)는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입억제를 위해 2017년 10월 비르화 가치를 미 달러화 대비 15% 평가절하하였으며,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5%에서 7%로 인상하였음.

2. 경제구조·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 및 열악한 농업생산성
- 농업 부문이 GDP의 35% 이상(2017년 기준)을 차지하며,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경제구조가 농업에 편중되어 기상조건, 농산물 국제가격 등 외부적 요인의 변동에 매우 취약함.
 - 산업별 GDP 구성(2017년) : 농업 35.8%, 서비스업 42%, 제조업 22.2%

- 한반도의 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부 고산 지대에서만 농산물 재배가 가능하며, 관개시설 부족으로 고질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등 농업 작황의 기후의존도와 변동성이 높음.
 - 총 경작가능면적이 약 7,360만 헥타르에 달하고 있음에도 농지 개발 부진으로 약 1,800만 헥타르만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초지 또는 황무지로 방치되어 토지의 이용효율이 매우 낮음.
- 대다수의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의 소규모 농법에 주로 의존하여,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 노동력 부족이 제조업 발전을 저해

- 교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숙련 노동력의 부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풍부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제조업의 발달이 부진한 실정임.
 - UN개발계획(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15세 이상 인구 문자해독률은 49.1%,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중등교육 이수 비율은 15.8%에 불과함.

나. 성장잠재력

□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 가능성 높음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자원수탈이 적어 금, 탄탈, 석재 등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함.
- Somali 주의 Ogaden 지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CIA World Factbook 2017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의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25억 m³로 집계되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5년 9월 중국 Poly Technology Company와 공동으로 천연가스 탐사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부터 천연가스 수출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내 신규 석유자원 발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 하나로, Ogaden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외국 기업들이 원유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임.

□ 풍부한 수력발전 잠재력 보유, 향후 인근 국가들에의 전력 수출 기대

- 에티오피아의 경우 전체 인구의 23% 수준만이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등 전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전력 생산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92.4%로 사실상 수력발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의 수력발전 잠재력은 45,000MW로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아프리카 2위 규모이나, 현재 수력발전 설비용량은 3,813MW 수준에 불과하여 개발의 여지가 많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수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및 발전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연간 발전용량을 2020년까지 15,488MW 수준으로 증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으로, 증대된 전력의 일부는 주변국에 수출할 예정임.
 - 현재 청나일(Blue Nile River) 유역에 총공사비 45억 달러, 최대 발전용량 6,00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겸한 Grand Renaissance 댐 건설 프로젝트가 금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임.

다. 정책성과

□ 국가발전종합계획인 GTP를 통해 중소득국 진입 추진

- 2002년부터 국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발전을 추진해온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0년 발표한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GTP: 2011~15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각종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였음.
 - GTP의 목표는 5년 간 연평균 11%의 경제성장률 달성으로, 동 기간 중 실제로 연평균 10.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목표치에는 다소 미달하였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음.

- 2015년 GTP II(2016~20년)를 시행하여, 인프라 투자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를 통해 1단계 GTP의 목표였던 5년간 연평균 11%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한편, 경제의 농업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지향적 제조업 부문을 육성하여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2025년까지 중소득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GTP II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인프라 구축으로, 특히 도로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에티오피아 정부는 도로망 부족에 따른 물류이동 문제를 경제발전에 중대한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음. 아울러 철도 건설과 非도시 지역 전력 공급에도 주력하고 있음.

□ 산업단지 확충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경공업 육성정책 지속

- 에티오피아 정부는 GTP II를 통해 2025년까지 산업단지 개발에 투자하여 섬유·의류 생산 등의 경공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14년 공기업인 산업단지개발회사(IPDC)가 설립되어 산업단지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World Bank 등의 지원을 받아 전국 11개 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음.
 - 공단별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종·연관 업체와의 시너지 증대가 기대되며, 저렴한 임대료 및 인프라 시설,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프랑스 등 2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등 16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음.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직 성과가 부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조사 대상 190개국 중 161위로 하위 20%에 포함되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직 성과가 부진한 상태임.

- 계약이행(Enforcing contracts, 68위)을 제외한 9개 부문에서의 순위가 모두 120위 이하에 그쳤으며, 특히 창업(Start a business, 174위) 및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76위) 부문의 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민간 부문을 육성코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 소비재 및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에티오피아는 커피 등 1차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인프라 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재의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가 GDP 대비 10%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가뭄 회복에 따른 식품 수입 감소, 공공 부문 자본재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9.0%) 대비 개선된 -8.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동 비율이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에티오피아 정부는 최근 대외부문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자본재 수입을 억제하는 등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

- 에티오피아의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공여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비르화 가치 하락과 경상수지 적자 기조 지속 등으로 2015년 말 37.2억 달러에서 2017년 말 30.0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월평균 수입액의 1.7개월분에 불과한 수준임.
- 2018년 말에도 에티오피아의 외환보유액은 32.6억 달러로 여전히 월평균 수입액의 1.7개월분에 불과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투자 및 경상수지 적자 충당에 따른 외채규모 증가

- 대규모 인프라 개발 투자, 경상수지 적자 충당 등을 위해 대외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4년 말 25.2%에서 2017년 말 33.5%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에티오피아의 경우 양허성 차관이 총외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출 조건이 유리한 편으로 2017년 D.S.R.은 10.5%를 기록하였음.
- 한편, 에티오피아는 2016년 이후 외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비양허성 부채 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향후 외채 도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o	2018 ^f
경 상 수 지	-3,576	-6,579	-6,574	-6,551	-5,994
경 상 수 지 / G D P	-6.4	-10.2	-9.0	-8.1	-6.5
상 품 수 지	-10,350	-12,057	-11,881	-12,357	-13,386
수 출	3,418	2,920	2,811	3,230	3,698
수 입	13,768	14,977	14,692	15,587	17,084
외 환 보 유 액	3,378	3,722	2,970	3,003	3,256
총 외 채 잔 액	14,005	24,492	25,553	27,123	25,553
총 외 채 잔액 / G D P	25.2	37.9	34.9	33.5	29.8
D . S . R	4.6	8.7	11.1	10.5	10.8

자료: IMF, EIU,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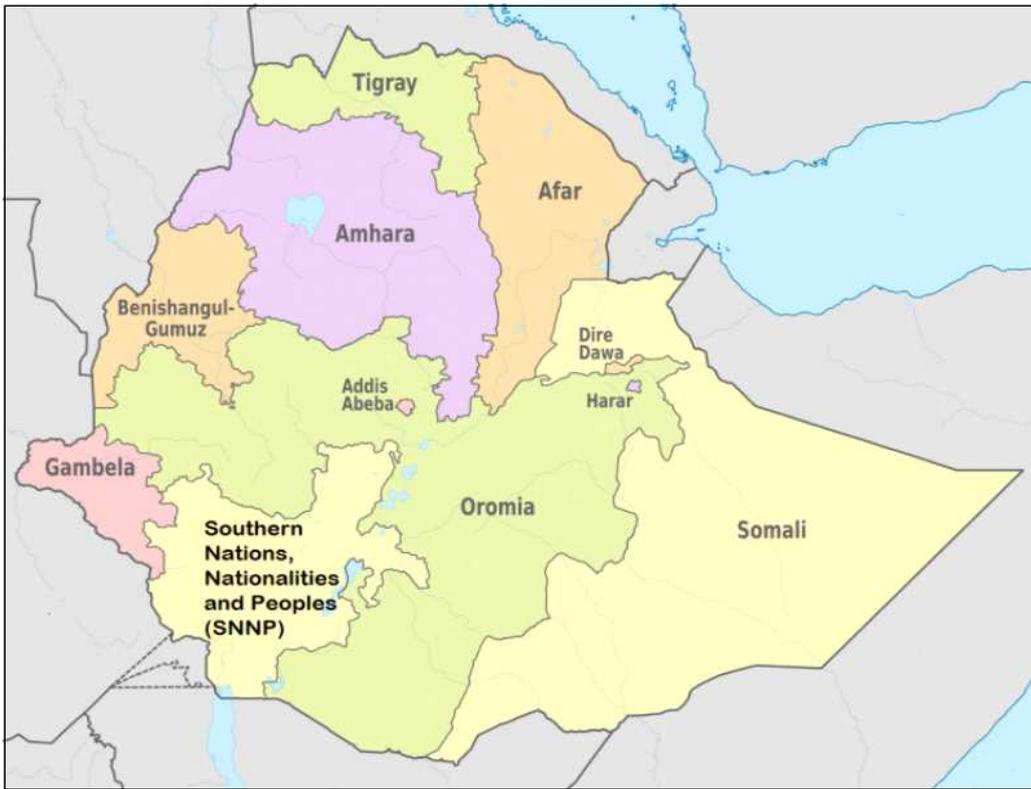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2016년 10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 2014년 4월 에티오피아 정부가 오로모족 거주지인 오로미아(Oromia) 주의 36개 도시와 17개 농촌 지역을 수도 아디스아바바 내로 편입하는 수도 확장계획(AAIMP)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져 갈등이 시작되었음.
 - AAIMP는 토지수용에 대한 초법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오로모족의 생존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됨은 물론, 지리적 분리와 환경오염 증대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됨.
- 이에 오로미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계속되어, 에티오피아 정부는 결국 2016년 1월 13일 AAIMP의 포기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정부에 분노한 오로미아 주민들의 반정부 시위는 계속되었고, 암하라(Amhara)족 주민들이 북부의 곤다르(Gondar) 시에서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면서 저항이 확산되었음.
- 에티오피아 정부는 반정부 시위에 무력진압으로 맞섰고, 급기야 2016년 10월 2일 오로미아 주의 비쇼프트(Bishoftu) 시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의 유혈진압으로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시위가 확산되어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10월 10일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국가비상사태를 4개월간 연장하였음.
 -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는 경찰 대신 에티오피아 정부군이 전 국토의 치안을 관장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

에티오피아의 지역 분포



자료 : 에티오피아 관광센터

- 2018년 2월 반정부 시위 확대에 따른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 사임 및 국가비상사태 재선포
 - 2018년 초에는 반정부인사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었으나, 제외된 인사 및 사면 규모 등에 대한 불만이 확대되며 오로미아 주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및 소요사태가 발생하였음.
 - 국가비상사태 선포('16.10.9~'17.8.9) 및 대규모 사면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자 에티오피아 총리인 하일레마리암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은 2018년 2월 15일 총리직 사임을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재선포하였음.

□ 2018년 3월 오로미아 주 출신 아비 아흐메드 신임 총리 선출

- 총리 사퇴 후 약 한 달 후인 3월 27일에는 집권여당인 EPRDF내 위원회 투표가 실시되어 오로미아 주 출신의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가 신임 총리로 선출되었으며, 암하라 주 출신 데메커 메코넨(Demeke Mekonnen)은 기존 부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었음.
- 아비 아흐메드 신임 총리는 정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수립, 민족 간 갈등 해결 등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티그라이족이 여전히 주요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개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임.
- 그러나 특정 소수민족(티그라이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에티오피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오로미아 주(약 34.4%) 및 암하라 주(약 27%) 출신 인사가 주요 직위에 임명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치·사회 불안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에티오피아 내각 및 의회는 정세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고 판단, 6월 초 국가비상사태 해제 법안을 승인하여, 재선포된지 4개월 만에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되었음.

2. 사회 안정

□ 세계 최빈국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지속

- UN개발계획(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에 발표된 인간개발지수(HDI)에서 에티오피아는 총 188개국 중 174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국민 10,000명당 의사 수는 0.2명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미비해 평균 수명은 64.6세(우리나라는 82.1세)에 불과하며, 5세 이하 어린이의 사망률은 1,000명 당 59.2명(우리나라는 3.4명)에 달하고 있음.
- Human Development Report 2016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인구의 67.0%가 심각한 빈곤(severe poverty) 상태에 놓여 있으며, 33.5%는 극빈선(PPP, 1일 1.9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세계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간 갈등은 사회불안의 근원

- 에티오피아는 오로모족, 암하라족 등 80여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간 갈등이 뿌리 깊은 사회불안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 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오로모족(34.4%)과 암하라족(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은 인구비중이 네 번째로 크지만 이들에 비하면 훨씬 소수인 티그라이족(6.1%)에 집중되어 있음.

□ 주변국들로부터의 테러 위협 상존

-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알-샤바브(al-Shabab)의 테러로 인해 에티오피아-소말리아 국경 지역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테러로 인한 위협요인이 지속적으로 잠재되어 있음.
- 알-샤바브는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에티오피아는 물론 케냐,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테러를 자행하여 역내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에리트레아와의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움직임

- 1993년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에서 분리 독립한 후 양국간 국경 분쟁이 1998년 전면전으로 발전하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동 전쟁은 2000년 12월 Algier 평화협정의 체결로 종료되었으나, 2002년 에티오피아가 자국에 속해 있던 Badme 지역을 에리트레아 영토로 귀속시키려는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 국경위원회(EEBC)*의 결정에 불복함에 따라 이후에도 두 나라 간 국경 분쟁이 지속되어 왔음.

* 동 위원회는 아프리카연합(AU)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UN 사무총장의 자문을 받음

- 그러나 지난 4월, 에티오피아 신임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취임 연설에서 에리트리아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6월 5일에는 집권 여당인 EPRDF가 성명을 통해 2000년에 체결한 에리트레아와의 평화 협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음.
- 지난 6월 26일에는 에리트리아도 정부 고위급 대표단을 아디스아바바에 파견하여 Badme 지역 국경 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Grand Renaissance 댐 건설로 불거졌던 이집트와의 갈등은 해결 국면

- 에티오피아 서부 Benishangul-Gumuz 지역에서 2011년 4월 착공된 청나일 (Blue Nile River) 유역의 Grand Renaissance 댐은 금년 하반기 완공되어 발전용량 6,000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임.
- 그러나 Grand Renaissance 댐 건설로 자국의 나일 강 수량(水量)이 감소하여 자국의 농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이집트는 건설 초기 부터 집요하게 반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관계가 악화되었음.
- 그러나 지난 6월 10일, 아비 아흐메드 신임 총리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댐 건설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집트의 나일 강 물 이용 지분 보장을 약속하며 양국이 최종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 공산 정권 붕괴 후 미국, EU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에티오피아는 1991년 멩기스투 공산 정권 붕괴 후 출범한 멜레스 제나위 정권부터 현재까지 계속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략적 요충지인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지역에서 미국, EU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부티를 아우르는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칭

- 미국은 에티오피아의 최대 원조 공여국이며, 영국도 매년 에티오피아 지원을 위한 ODA에 3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는 등 에티오피아의 주요 개발 파트너임.

□ 중국은 대규모 원조를 기반으로 에티오피아의 기간망 사업에 대거 참여 중

- 중국은 최근 에티오피아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로, 2005~15년 기간 중 중국의 대 에티오피아 금융 지원 규모는 약 130.7억 달러 규모에 달함.
- 중국은 대규모 원조 및 자금 제공을 앞세워 에티오피아의 철도망, 통신망, 전력망 등 기간망 분야의 건설 프로젝트를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도로의 경우 2005년 이후 에티오피아 도로 건설의 약 70%를 중국 건설기업들이 수주해 오고 있음.
 - 중국철도그룹(China Railway Group)은 아디스아바바와 아프리카 동부 아덴 만 연안의 지부티 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752km의 전철 철도(계약 규모 11억 달러)를 부설하여 2016년 10월 개통하였으며, 아디스아바바 경전철 공사(계약규모 4.8억 달러)도 중국 기업들이 진행하였음.
 - 중국 기업들은 에티오피아 북부의 Tekeze River 댐(계약규모 약 3.7억 달러) 건설, 수력발전소들과 아디스아바바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망 건설 및 Grand Renaissance 댐과 송배전망 건설도 수주하였음. 동 프로젝트 들에는 중국수출입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또한, 아디스아바바로부터 42km 떨어진 Dukem에는 중국 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해외특별경제구역인 Eastern Industry Zone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3. 12. 23 (북한과는 1975. 6. 5 수교)
- **주요 협정** : 경제기술협력협정(1992), 문화협정(1998), 무역협정(200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2011), 무상원조기본협정(2011), 과학기술협력협정(2012)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8년 3월 말 기준 18건, 3,031만 달러(누계기준)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
 - 2017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약 1.8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호식품(커피) 등임.

< 표 4 >

한·에티오피아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113,395	96,901	113,982	건설광산기계, 합성수지 등
수 입	55,434	53,497	61,976	기호식품, 곡실류, 축산부산물 등
교역규모	168,829	150,398	175,958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에티오피아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증대 정책으로 최근 수년 간 평균 10% 안팎의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음. 2016년에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8.0%에 그쳤으나, 2017년에는 농업 부문 회복과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10.9%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됨.
- 인프라 개발 투자 등 공공 부문의 과도한 지출로 재정수지는 GDP의 -2% 대의 만성적인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또한 소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쌍둥이 적자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으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외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20년 이상 집권하고 있는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2015년 5월 총선에 서도 압승을 거두며 장기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나, 80여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의 특성상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둘러싼 부족간 갈등은 사회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음.
- 2016년 10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경찰의 유혈진압으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였음. 이후 반정부 인사 대규모 사면에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자 2018년 2월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사임하고 3월 오로미아 주 출신의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새로이 선출되었으며, 6월에는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되었음.

조사역 이지은 (☎02-6255-5708)

E-mail : jelee@koreaexim.go.kr